

데이터 분석센터 신설, AI 시스템 확대...농어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주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 구축 및 인프라 고도화 ▶국민 편의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디지털 중심 업무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사는 지난해 디지털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KRC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는 디지털 혁신처와 데이터 분석센터를 신설해 공사의 경영지원 업무와 사업 전반에 디지털 서비스를 확장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을 높이고 있다.

공사가 보유한 64개 정보시스템과 2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도 정비한다. 시스템별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표준 용어·단어·도메인·코드로 새롭게 정의해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농지은행사업에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농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행정 처리비용 절감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드론 등 최신 기술을 농지조사에 적용해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AI) 농지분석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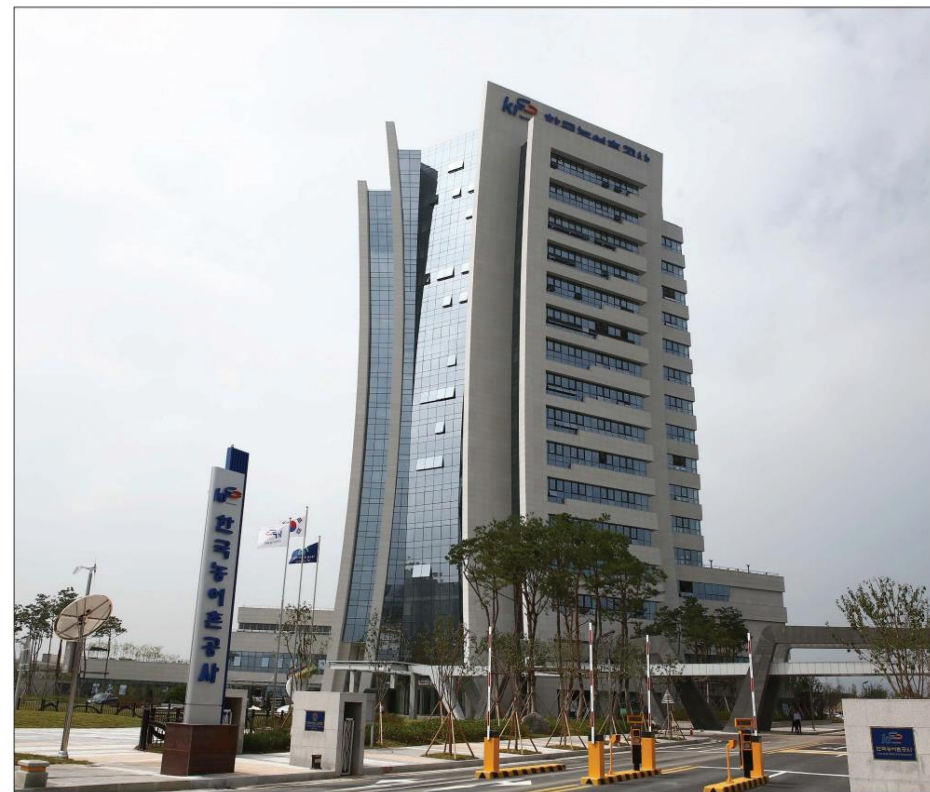
정확성 역시 높일 계획이다.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사회문제해결형 국가 R&D우수기술로 선정된 '녹조청소로봇'과 같이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AI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녹조 제거·수거가 가능한 '녹조청소로봇'을 개발, 상용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방대한 수자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상황 시 신속하게 주민 대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 처리하는 로봇(RPA) 소프트웨어를 전사에 도입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병호 사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 구축 및 인프라 고도화, 국민 편의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